

마지막 4중주

잊지 못할 감동의 연주에 초대합니다

광주극장 10일 '마지막 4중주' 상영 앞서 클래식공연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한 음악인 4명을 통해 삶과 예술,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 '마지막 4중주'. 블록버스터와 가족영화가 섞여지는 여름 상수기인 지난 25일 개봉한 예술영화 '마지막 4중주'가 9일 만에 2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들은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리네 나흐트 뮤직 제1·2악장'과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종달새 제1·2악장'을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광주극장은 '마지막 4중주'가 클래식 음악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착안해 오는 10일 오후 4시30분 극장 무대에서 영화 상영에 앞서 클래식 공연과 함께하는 영화 '마지막 4중주' 무대를 진행한다.

무동실내악단은 음악 봉사 등 재능기부에 의미를 두면서 소규모 작은 음악회나 하우스 콘서트 등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영화 '마지막 4중주'는 현악 4중주단 '푸가'로 25년간 함께 활동해온 음악가들의 이야기로, 첼리스트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겪게되는 단원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이날 무대는 무동실내악단 수석들로 구성된 '무동 현악 4중주'(제1바이올린 박행조, 제2바이올린 김광수, 비올라 윤재운, 첼로 김형원)의 연주로 꾸며진다.

관람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영화 '아무르' DVD와 '마지막 4중주' 포스터, 도서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문의 062-224-5858, 카페(<http://cafe.naver.com/cinmagwangju>).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971년 뉴욕 화실에서

KIM WHANKI

전시장에 들어서면 저절로 그림 앞에 바짝 다가서게 된다. 각양각색의 점(點), 선, 면이 어우러진 형상 뒤로 살구빛 종이에 새겨진 영문 글씨가 눈에 띈다. 그림의 색깔은 은은히 배어나오고, 물감이 묻지 않은 붉은 부분은 또 다른 미감을 전해준다. 작가는 '캔버스' 대신 '신문' 위에 그림을 그렸다.

1967년, 미국에 머물던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 화백은 매일 집으로 배달되는 '뉴욕타임즈'에 그림을 그렸다. 가난한 예술가에게 값비싼 재료들은 언제나 부담이었고, 신문지를 '발견'한 작가는 하루에 2~5점씩 '일기 쓰듯' 그림을 그렸다. 이후 한지, 갠지, 보드지, 공책과 포장지 등 다양한 '종이'가 모두 활용됐고, 종이를 통한 다양한 실험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점화(點畵)'의 토대가 됐다.

지난달 25일 서울 갤러리 현대에서 열린 'Works on paper-김환기 탄생 100주년전'(7월11~30일)을 찾았다. 신안 출신으로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환기 화백의 탄생 100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는 김 화백의 종이 작품(Oil on paper·1967~73년) 63여점과 캔버스 작품 3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모두 3개층에서 진행됐다. 1층에서는 다양한

뜨는 눈으로 작품을 대할 것이다.'(1968년 7월2일) 그런 '새로움'으로 그는 종이 위에 다양한 실험을 했을 것이다.

아내 김향안은 1990년 그의 종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썼다. "1968년대 뉴욕 타임스 종이 좋아서 신문에 유채를 시도한 김환기는 종이 포함 기름과 유채가 혼합되어 빛깔에 윤기가 돌고 꼭 다리미질 한 것과, 같은 질감이 나오는 것이 재미난다면서 한동안 유채 작업에 몰두했다."

신문지 위에 그린 작품들은 화사한 색채와 다채로운 조형미로 관객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흔히 추상 작품을 갖는 난해함 대신, 친숙함과 따뜻한, 재미 이런 게 먼저 떠오른다.

2층 마지막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종이 대신, 목면 천 위에 그린 대형 점화다. 그의 초창기 종이 작업의 내공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97년 '김환기 회고전 1954-1970'을 시작으로 김환기 관련 전시를 꾸준히 열어온 갤러리 현대는 지난해 '한국현대미술의 거장-김환기' 전을 개최했고, 이 전시회에는 4만명이 넘는 이들이 다녀갔다. 갤러리 현대는 이번 전시를 기념해 각계각층에서 모은 'Oil on

캔버스 아닌 신문에 그린 그림 '깊은 울림'

색깔의 점을 반복적으로 찍어나가며 독특한 조형미를 만들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자연스러운 변질과 색깔의 조화가 인상적인 작품들은 한참 동안 발길을 붙잡으며 응시하게 만든다.

이하 1층 전시실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그의 일기에서 따온 한 대목이 적혀 있다. '작가가 늘 조심할 것은 상식적인 안목에 붙잡히는 것이다. 늘 새로운 눈으로,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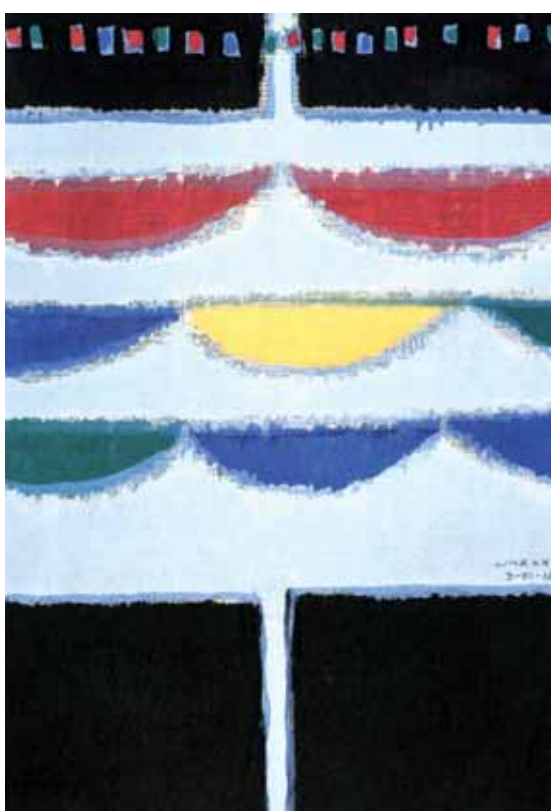
paper' 작품 100점을 엮은 국영문 도록을 출간했다.

우리 지역 출신임에도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획 전시가 없어 아쉬웠던 차에 이번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에 옮겨와 오는 28일부터 9월22일까지 관객들을 만난다. 어떤 블록버스터 전시보다 깊은 울림을 주는, 놓치지 아까운 전시다.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안 출신... 탄생 100주년 기념
미리보는 김환기 미술세계

가난한 예술가
'뉴욕타임즈'에 일기쓰듯 그려
광주시립미술관 28일~9월22일
종이·캔버스 작품 80여점 전시



'Untitled 9-XI-68' (1968년 작)



'Untitled 2-II-73' (1973년 작)

한땀한땀 정성 가득 남도향토음식박물관 20일까지 '상상초월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오는 20까지 전통 규방공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수려해 회원들을 초대해 '상상초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수려해 대표이자 규방공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우영희씨를 비롯해 모두 8명의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수놓아 만든 자수조각보, 모시발, 육사가리개 등이 전시된다.

규방공예는 엄격한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 양반집 규수들이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공예 예술의 하나다. 시각·입체적 조형감과 심미감으로 표현되는 규방공예는 오늘날 전통미학을 계승하는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자기의 한 종류인 조각보는 규방공예의 백미다. 우씨는 "규방공예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중요한 관광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중한 전통공예를 계승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575-888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한영희 작 '자수 조각보'



창업 31주년 **KJHR**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NAVER **홍스페이스** 검색



홍스페이스 hong79.com
1899-0240

던롭침대 | 세계최초 라텍스침대 코잔드침대 | 온열, 안마침대